

2010년 가을 학기 전 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16

사도행전에서

(3)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의 영, 복음의 내용

성경: 행 13:33-34, 16:6-7, 26:18

I.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다윗의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시다—행 13:33-34.

- A. 부활은 사람 예수님에게 있어서 출생이었다. 그분은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서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롬 8:29.
1. 그분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요 1:18, 3:16). 육체 되심 후 부활을 거쳐 그분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서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2. 주 예수님에게는 두 출생이 있었다. 먼저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 그분의 인성 안에서 태어나셔서 맏아들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롬 1:3-4.
 - a. 그리스도의 인성—육체—은 신성하지 않고 인간적이었다.
 - b.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은 그분의 신성 안으로, 즉 그분의 신성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 인정되었다(부활했다, 높여졌다)—요 12:23, 눅 24:25-26.
 - c.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셔서 그분의 많은 형제들—하나님의 많은 아들들—가운데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행 13:33, 롬 8:29.
 - d. 그분의 구속된 믿는 이들은 동일한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함께 태어났다(거듭났다)—벧전 1:3, 엡 2:6 상.
 3.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주님은 신성한 생명의 체현이시다(요 1:4).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생명의 번식을 위한 생명 분배자이신 하나님의 맏아들(12:24, 롬 8:29-30)이 되셨다
- B. 사도행전 13 장 34 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더 말한다. “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더 이상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게 하신 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
1. 여기에서 ‘ 거룩한 것들’ 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복수형이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다음 절에서 ‘ 거룩한 분’ 으로 사용되지만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35 절.
 2. 그러나 그것은 ‘ 거룩한’ 에 대한 통상적인 단어가 아니며, 히브리어 ‘ 헤세드’ 에 해당하는 헬라어이다. 그 단어는 이사야 55 장 3 절에서, 또한 칠십인역과 흠정역 역대하 6 장 42 절과 시편 89 편 1 절에서 ‘ 공홀들’ 로 번역되어 있다.
 3. 시편 89 편 1 절(흠정역)에서 복수형인 ‘ 공홀들’ 에 사용된 단어와 18 절에서 단수형인 ‘ 거룩한 분’ 에 사용된 단어는 동일한 단어이다. 이 거룩한 분은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시며, 하나님의 공홀들이 그분 안에 집중되고 전달된다.
 4. 그러므로 ‘ 다윗의 거룩한 것들과 신실한 것들’ 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것은 문맥에 의해, 특히 다음 절에 있는 ‘ 주님의 거룩한 분’ 과 이사야 55 장 3 절 하반절로 충분히 증명된다.
 5.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살려지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에게 주신 큰 선물인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이 선물은 ‘ 거룩한 것들…신실한 [믿을만한] 것들’ 이라 칭한다.

6. ‘ 거룩한 것들…신실한 것들’ 이라는 구는 사실상 신성한 칭호, 그리스도의 칭호이다. 이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든 방면이다—고전 2:9-10, 15:45 하.
7. 구약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은 공훈들로 여겨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함한 선물로 주신 공훈들이 거룩하고 신실한 모든 것들이다—사 55:3, 대하 6:42, 시 89:1.

II. 사도행전 16 장 6 절-7 절은 우리가 사도들의 사역에서 그들을 안내하신 분이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음을 가리킨다 .

- A. 복음의 확산을 위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움직임은 그들의 결정과 선호에 따르거나 사람의 회의에서 결정된 어떤 일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에 의한 것이었다.
- B.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실재, 실재화이다. 예수님의 영은 고난을 위한 넘치는 힘을 지닌 사람의 영이다—22-34 절.
- C. 예수님의 영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분 안의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영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분 안의 인성을 지닌 사람 예수님의 영이다.
- D.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러한 영은 사도들의 전파하는 사역, 곧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서 고난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했다.
- E. ‘ 성령’ 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이다. ‘ 예수님의 영’ 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다. 예수님의 영은 육체가 되신 구주의 영으로서, 그분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거치시고, 신성한 생명을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 안으로 나눠주심으로 번식하시기 위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다. 이 영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예수님의 총체이시자 완전한 실재화이시다.
 1.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의 종류는 우리가 안내를 받는 영에 달려 있고, 우리가 조성되는 영에 달려 있다. 이 영이 우리의 조성이 되셔야 한다.
 2. 그럴 때 우리의 일은 이러한 영의 표현이 될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공급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러한 분이신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III.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복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 내용이다.

- A. 우리는 사도행전 26 장 18 절에 있는 우리의 신성한 위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여,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체험과 실재가 되게 하시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러한 체험과 실재 안으로 이끌 수 있게 하시기를 구해야 한다—엡 3:8-9.
 1. “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 a. 우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분배에 대해 더욱더 알고 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1:17, 3:5, 비교 계 4:6, 3:17-18, 마 6:6.
 - b. 우리는 주님께 대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이상이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행 26:16, 빌 3:8 상, 10 상, 13, 비교 신 4:25.
 - c. 사역자와 증인이 되는 것은 가르침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나타남과 이상의 문제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본 것과 그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한다—행 22:14-15.
 - d. 일단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상을 보고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이키면 당신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도록 힘을 주는 것이 있을 것이다—갈 1:15-16, 롬 15:16, 고전 15:10.
 2. “ 어둠에서 빛으로”
 - a. 빛은 하나님의 임재이다—사 2:5, 요일 1:5.
 - b. 우리는 빛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눅 11:34-36.

- c.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 빛 가운데서’ 이다—골 1:12, 요일 1:5, 요 8:12, 1:4, 시 119:105, 130, 마 5:14, 계 1:20.
 - d. 우리는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서 발광체들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빌 2:12-16.
 - e. 우리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그분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을 널리 알려야 한다—벧전 2:9.
3. “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 a.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가장 높은 지점은 그 위에 보좌가 있는 맑은 하늘을 갖는 것이다—겔 1:22, 26.
 - (1) 맑은 하늘 위에 보좌를 갖는 것은 우리의 존재 안에서 주님이 으뜸이 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높고 뛰어난 지위를 가지시게 하는 것이다—골 1:18, 비교 겔 14:3.
 - (2) 우리가 그 위에 보좌가 있는 맑은 하늘 아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끌 수 있는 진정한 권위가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고후 10:4-5, 8, 13:3, 10.
 - b. 주님에 대한 우리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를 자격 있게 하고 온전케 하고 장비시켜,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말하게 한다—비교 요 21:15-17.
4. “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 a.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들에 대한 철저한 용서를 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요일 1:7, 9.
 - b. 다윗은 그의 죄과를 도말하시고, 그의 죄악을 철저히 씻으시고, 그의 죄에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슬초로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의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의 속에 견실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건축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했다—시 51:1-2, 7, 9-11, 18.
 - (1) 우슬초는 겸손하고 낮아지신 인간 본성 안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왕상 4:33 상, 출 12:22 상), 이것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희생 제물(히 8:6, 9:15, 10:9)이신 그리스도를 함축한다.
 - (2)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철저하고도 참된 회개와 자백을 하여 하나님에게서 완전한 용서를 받아야 한다.
 - (3)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가질 것이고 자원하는 영이 우리를 붙들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범죄자들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칠 수 있고, 죄인들이 그분께로 돌아올 것이다—시 51:12-13.
5. “ 나를 믿음으로써...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 a. 이 유업은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 그분이 그분의 구속된 백성을 위해 하실 모든 것을 지니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 b. 삼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유업으로 할당된 몫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로 체현되신다—골 2:9, 1:12.
 - c. 우리는 ‘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비교 딤후 2:22), 즉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엡 1:14)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
 - d.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 생활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로 이끌어,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들의 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게 해야 한다—히 2:10-11 고전 1:9, 고후 4:13.